

이원재 차관, 페루서 해외건설 외연 확장 모색

- 교통통신부 장관 등 만나 도로·철도 팀코리아 지원, 건설현장 격려 -

- 페루를 방문 중인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31일(화) 오전 **빠올라 라사르테(Paola Lazarte)**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 및 **알렉세이 오블리타스(Alexei Oblitas)** 국가도로청장과 면담을 갖고, 팀코리아(우리기업 컨소시엄)의 페루 주요 인프라 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“최근 페루 정부가 발주한 **아마존 도로 정비 총괄관리사업***(PMO, Project Management Office)에 세계적 기술력과 신뢰를 자랑하는 **팀코리아(한국도로공사, 도화엔지니어링)**가 선정된다면, 친체로 신공항 사업**에 이은 **정부간(G2G) 모범적 협력사례가 될 것**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(ODA)사업을 통한 교통 분야 **교육프로그램** 제공, **공항철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협력사업**도 제안하였다.

- * 발주처 : 국가도로청(교통통신부 산하) / 사업규모 : 총 214km, 3개 구간 / 총공사비 : 약 3억 달러(3천 7백억 원) / 총괄관리(PMO) 사업비 : 약 200억 원 예상 / '23.2.15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(예정)

- ** 발주처 : 교통통신부 / 내용 : 설계검토, 시공사, 감리단 선정, 사업관리, 시운전 / PMO 사업비 : 약 350억 원(건설비 약 7천억 원) / 사업기간 : '19.11~'24.10(25.9 월로 연장 협의 중) / 팀코리아 참여기업 : 한국공항공사, 도화, 건원, 한미글로벌

- ※ 페루 교통통신부가 발주한 친체로 신공항 총괄관리사업(PMO)을 팀코리아(한국공항공사, 도화엔지니어링 등)가 수주하면서 건설공사로 우리기업(현대건설 등)이 참여

- 이에 **라사르테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**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“**한국은 페루의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킬 최고의 협력 파트너**”라면서 “**도로, 철도, 등 인프라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기를 기대한다**”고 화답했다.

- 한편 이 차관은 행정절차 지연 등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과 관련한 **우리기업의 애로사항**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

였고, 라사르테 장관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에 대한 페루 정부의 기대와 추진의지를 강조하며, "팀코리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□ 이날 면담에 앞서, 이 차관은 전날인 1월 30일(월) 마리아 하라 (María Jara) 페루 리마-까야오 도시교통청(Authority of Urban Transport for Lima and Callao) 청장과의 면담에서, 우리기업 참여의지가 강한 리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"리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*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협업하여 금융지원과 연계한 사업 실행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* 국가철도공단, 서울메트로, 한국철도공사,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

○ 이에 하라 페루 리마-까야오 도시교통청장은 "한국의 철도 분야 기술력을 신뢰하며, 우선 추진구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, 한국 정부와 사업추진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겠다"고 답했다.

□ 이 차관은 같은 날 웨르넬 살세도(Werner Salcedo) 쿠스코주 주지사와 친체로 시장 등을 만나 "한국 정부는 친체로 신공항이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이자 지역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"이라고 강조하였고,

○ 이에 살세도 주지사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전을 적극 요청하면서, 스마트시티, 관광,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한국기업이 현지진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약속하였다.

□ 이외에도 이 차관은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단과 리마 메트로 2호선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.

- 이 차관은 “페루는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국가와 분야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중남미 시장”라고 평가하고, “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새로운 한-페루 인프라 협력의 계기로 인식하여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2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